

# 호란엔야의 관람포인트

## 노래

호란엔야는 음이 비슷한 「豊来栄弥(호-라이에이야)」 「宝来遠弥(호-라이엔야)」와 같은 한자로도 치환하며 풍작을 기원하는 사람들의 강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 노래는 노를 저을 때 박자를 맞추기 위해 부르는 뱃노래로 참가하는 다섯 마을마다 독자적인 리듬과 곡조로 불립니다.

「호-오오엔야 호-란에-에 요야사노사 에-라라노란라」의 곡조는 귀에 맴돌며 마음을 울립니다. 상황에 따라 노래를 바꿔 장단을 가다듬으며 일곱 곡을 구분해 부르는 마을도 있습니다.



겐가이

## 춤

남자역의 겐가이와 여자역의 자이후리 그리고 큰 북을 치며 추는 춤을 가이텐마 오도리 춤이라고 합니다. 에도시대 말기 가카라는 어촌 마을의 선장이 당시 대단히 인기가 많았던 에치고 지방(지금의 니가타현)에서 춤을 배워 온 후 호란엔야에 접목시켰다고 합니다. 젊은 참가자들이 용맹한 겐가이와 자이후리의 모습으로 분해 춤을 선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이 사람들을 매료합니다. 춤과 노래는 다섯 마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이코

자이후리

## 의상

남자역인 겐가이의 허리춤에 묶인 천으로 끈 동아줄은 스모의 가장 높은 계급인 요코즈나를 본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아줄 아래에 허리에 두른 천도 스모 경기 의식 때 선수가 두르는 천을 모방한 것으로 화려한 자수가 놓여있습니다. 여자역인 자이후리와 북을 연주하는 아이들의 의상은 기모노용 속옷을 입은 후 화려한 색으로 무늬를 염색한 비단 기모노를 입습니다. 북을 치는 아이들은 귀여운 꽃 삿갓이나 모자를 씩니다.

## 배



원래는 마쓰에성의 안쪽 해자인 기타소몬바시 다리 근처에서부터 출발하였지만 해자의 수심이 낮아지고 배가 커져 현재는 오하시가와 강가에서 출항합니다.

신을 모신 미코시부네 배와 이를 호위하는 가이텐마센 배 등 약 100척이 장장 1km가 넘는 대선단을 이뤄 앞으로 나아갑니다. 배의 장식은 눈부신 색채로 축제의 화려함을 더합니다.

# 마쓰에 호란엔야 전승관

## 호란엔야란?



호란엔야의 정식 이름은 「마쓰에 조잔이나리신사 식년 신코사이(松江城山稻荷神社式年神幸祭)」로 마쓰에성 내에 있는 조잔이나리(城山稻荷)신사에 모셔진 신을 약 10km 떨어진 히가시이즈모정의 아다카야(阿太加夜)신사까지 배로 모셔 7일간에 걸쳐 이즈모 지방의 안정과 풍작을 기원한 뒤 되돌아 오는 배를 이용한 축제입니다.

10년에 한 번 오하시가와 강과 이우가와 강을 무대로 약 100척의 배가 대선단을 이뤄 행렬하는 마쓰에가 자랑하는 전국 최대급의 후나신지(船神事, 배를 이용한 제사)입니다.

호란엔야는 조잔이나리신사의 신을 아다카야신사까지 배로 옮기는 도교사이(渡御祭), 아다카야신사에서 7일간의 기도제와 중간날인 주니치사이(中日祭), 아다카야신사에 안치된 신을 배로 다시 조잔이나리신사로 모시는 간교사이(還御祭)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호란엔야의 시작

1648년 이즈모 마을은 변덕스러운 날씨로 대흉작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마쓰에의 영주였던 마쓰다이라 나오마사 공이 이를 걱정하여 조잔이나리신사와 아다카야신사의 신직을 겸무하고 있던 신관에게 조잔이나리신사의 신을 배로 옮겨 모신 다음 오랜 시간에 걸쳐 풍작을 기원하게 한 것이 호란엔야의 시작입니다. 이후 370년간 호란엔야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마쓰다이라 나오마사의 초상화



조잔이나리신사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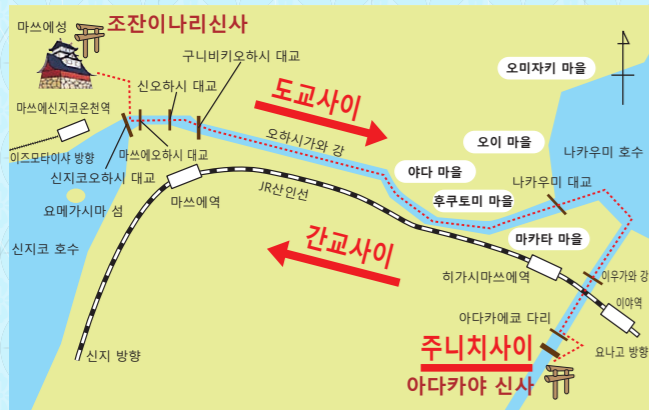


# 호란엔야의 고다이치(다섯 마을)

고다이치(五大地)란 마카타, 야다, 오이, 후쿠토미, 오미자키의 다섯 마을을 일컫습니다. 1808년의 제사를 지낼 당시 거센 폭풍우로 신을 모신 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마카타 마을의 어부가 도와 아다카야신사까지 무사히 안내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도 가이텐마센 배가 신을 모신 배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마카타 마을을 시작으로 각 마을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마을은 신을 무사히 호위하는 것을 최대 사명으로 마을 주민이 모두 힘을 합쳐 마쓰리를 준비합니다.

## 첫 번째 배 마카타



## 두 번째 배 야다



## 세 번째 배 오이



## 네 번째 배 후쿠토미



## 다섯 번째 배 오미자키



# 가이텐마센 배와 선원

가이텐마센 배는 신을 모신 배를 따르며 호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원들은 각각 마을의 마을의 남자들이 담당하며 호란엔야 노래와 남자역의 겐가이와 여자역의 자이후리 그리고 북을 치는 아이들이 추는 가이텐마오도리 춤은 10년 전 축제에 참가했던 스승에게 배우며 현재까지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호란엔야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배를 젓는 선원들이 번갈아 부르던 뱃노래에 유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 덴마초

덴마도우도리(伝馬頭取)라고도 불리며 가이텐마센 배의 모든 것을 지휘하는 선장입니다. 항상 배 중심에서 능률하게 자리를 잡고서 선원들에게 적절히 지시를 내립니다. 배의 안전과 원활한 운행을 위해 배 전체를 통솔합니다.



## 온도토리

선원들이 노 젓는 리듬을 맞추는데 중요한 선장을 하는 역할입니다. 눈에 띄는 화려한 의상을 입고 가슴을 펴고 양손을 허리에 얹은 후 당당하게 호란엔야를 단전에서 끌어올려 선창합니다. 무용수와 노를 젓는 선원들의 리듬이 하나가 되도록 장단을 맞춥니다.



## 하야스케

미즈사키안나이(水先案内, 수로 안내자)라고도 불리며 긴 봉을 능숙하게 다루어 다른 배와의 충돌을 피하는 등 가이텐마센 배가 원활히 나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배의 맨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가장 눈에 띄며 마을 별로 독창적인 의상을 입고 관광객의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 네리가이

가이텐마센 배의 키를 잡는 사람으로 마을에 따라 도모가이(櫓權)라고도 불립니다. 시선을 끄는 거대한 노를 양손에 쥐고 온 정신을 집중해 선장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가이텐마센 배를 통제합니다. 노래로 출항과 귀항을 알립니다.



## 겐가이

배의 선두에 자리 잡고 겐가이라 불리는 검은 분 떠 만든 길이 1m 정도의 노를 자유자재로 휘두르며 날래고 씩씩하게 춤을 춥니다. 예부터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던 가부키 배우와 스모 선수를 연상하게 하는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 자이후리

화려한 기모노를 입은 축제의 꽃인 여자역으로 자이라 불리며 대나무 봉을 양손에 쥐고 춤을 춥니다. 배의 뒤에 실은 나무 통 위에서서 최대한 몸을 뒤로 젖히고 하늘을 향해 화려하게 대나무 봉을 휘두릅니다.



## 다이코

화려한 의상을 입고 머리에는 꽃 삿갓 혹은 관례를 올린 남자가 쓰는 검은 모자를 쓰고 노래에 맞춰 큰 북을 칩니다. 주로 초등학교 생이 연주를 하며 바른 자세로 앉아 진지한 눈빛으로 리듬을 맞춥니다.



## 가이카타

가이텐마센 배의 노를 젓는 사람들로 선원의 3분의 2정도를 차지합니다. 화려한 무늬로 염색한 깃털을 입고 머리띠를 두른 후 호란엔야의 구호와 맞춰 있는 힘껏 노를 젓습니다.